



진안군, 주민중심 마을복지 체계 구축 워크숍 진행

진안군은 지난 20일 신약초타운 강당에서 '주민중심 마을복지 체계 구축' 사업사업 추진을 위한 2차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진안읍·백운면·용답면 마을복지추진단 및 맞춤형복지팀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김기경 월평 공동 대표의 강의로 지역사회 욕구조사를 통한 문제 발견과 지역에 맞는 과제 도출을 위해 각 마을별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군은 앞서 지난 5월 1차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앞으로 3차 4차 워크숍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워크숍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마을복지 계획을 최종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모든 읍·면을 대상으로 주민중심 마을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진안=우태민 기자



장수 계북면지사보협, 중복맞이 삼계탕 나눔

계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경용·김재수)는 지난 20일 중복 맞아 독거노인 50세대에 삼계탕과 선풍기, KF마스크 생수를 전달했다.

전달된 KF마스크 500장과 생수 1,000개는 김재수 민간위원장이 기탁한 물품으로 진행됐으며, 선풍기 2대는 장수군 적십자봉사회(회장 김광순)에서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의체 위원들이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며 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건강과 안부를 살피는 보람된 시간을 가졌다.

김경용 계북면장은 "이웃을 위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기안전공사, 삼천2동에 '우유' 정기 기부

무료나눔냉장고에 소외계층을 위해 후원 협약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삼천2동 소외계층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우유를 후원하기로 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와 삼천2동주민센터(동장 정진숙)는 21일 주민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사랑이 꽂파는 냉장고'에 정기적으로 우유를 후원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공사는 '사랑이 꽂파는 냉장고'에 매주 1리터 우유 40개씩을 기부하게 된다.

'사랑이 꽂파는 냉장고'는 관내 음식점, 식품업체, 마을기업, 자선단체, 주민 등이 기부한 밀반찬, 식재료 등을 주민센터 출입구에 위치한 냉장고에 채워 놓으면 생계가 곤란하거나 음식조리가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방문해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방식으로 연중(월~금) 운영되고 있다.

기탁되는 우유과에는 생활 속 올바른 전기사용에 대한 홍보 문구가 기재돼 있어 전기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키는 전기안전 도우미 역할을 똑똑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현 사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사회경제활성화와 균형 잡힌 영양공급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후원을 결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협안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한전 군산지사, 소외계층에 삼계탕 봉사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지사장 정관영, 노조위원장 이수길)은 복지 시각장애인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군산시, 전북마음모아봉사단,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협업해 지난 5월부터 '소외계층 빛드림 반찬봉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일에 진행된 제3차 빛드림 반찬봉사에서는 한전 군산지사의 사원들과 전북마음모아봉사단원 20여명이 삼계탕을 정성껏 조리해 김치를 비롯한 각종 밀반찬과 함께 포장한 후 직접 소외계층 각 세대를 방문해 문앞에 배달했다.

한전 군산지사는 앞으로도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및 전북마음모아봉사단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대상을 추가 발굴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관영 한전 군산지사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식재료 등을 후원해주셔서 감사 드린다"며 "방학으로 젊은 아이들이 없도록 지원대상을 추가 발굴하고 더 나아가 ESG 가치경영을 실천하는 선도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희진 전북마음모아봉사단장은 "방학동안 급식지원을 받지 못하고 젊은 아이들이 있을까 걱정된다"며 "더이상 젊은 아이들이 없는 살기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창립60주년 기념 릴레이 사은 행사 개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21일 무주 안성면에서 농협 창립60주년을 기념하고 농업인과 함께하는 사은 행사를 통해 따뜻한 농협을 구현하고자 최고령 조합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전북 농협 정재호 본부장, 무주군지부 오영석 지부장, 무주 농협 괴동열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 안성 관내 100세의 고령 조합원을 모시고 농협과 함께한 60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정재호 본부장은 "지난 60년 동안 농협이 대한민국 경제와 농업 역사에서 충족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농협을 사랑하고 이용해주시는 농업인 조합원과 국민들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존중받을 수 있는 100년 농협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농협 창립60주년을 기념해 이달 말까지 각 시·군 별로 최고령 조합원 또는 최장기 조합원을 선정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릴레이 사은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서전주로터리클럽, 평화1동 취약계층에 백미 전달

국제로터리3670지구 서전주로터리클럽(회장 박지원)은 21일 평화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리며 백미 10kg 15포(5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백미를 전달받은 홍모 어르신은 "계속된 무더위에 몸도 마음도 지쳐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전주로터리클럽 박지원 회장은 "소소하지만 정성스레 준비한 물품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즐거움을 드린 거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꾸준히 이웃돕기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주 평화1동장은 "서전주로터리클럽의 꾸준한 이웃돕기 실천에 대한 열정이 느껴져 든든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배려와 사랑이 가득한 봉사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한편 서전주로터리클럽은 평화동 행정복지센터와 자매결연 체결 이후 매년 집수리사업, 이웃돕기 물품 전달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지난 1일 제52대 회장으로 박지원 변호사를 선출하고 새롭게 임원진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에 들어갔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www.jmci.com
등록번호: 전북-00016

2004년 11월 23일 농·축·의·기
(주)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35-4113
삼천지사
010-2333-4791
사천지사 272-9417
호지지사 010-885-9935

종로지사 010-9088-6874
인후지사 246-6865
송천지사 256-2104
필복지사 256-6844
군산지사 010-6789-0088
의성지사 688-9923

*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